

‘한국산 둔갑 위조상품으로부터 케이(K)-상표(브랜드) 수호’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 특허청, 인사혁신처 주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3년 연속 수상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한국산 둔갑 위조상품으로부터 케이(K)-상표(브랜드) 수호’ 사례가 「2023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사례는 한국산으로 둔갑한 위조상품 확산을 초기에 차단한 사례로, 중국과 베트남 현지에서 위조상품을 직접 단속하고, 중국 지식재산권 소송에서 피해기업들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해 최초로 승소 판결을 이끈 내용이다.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등 현지 담당자들이 해외 위조상품 유통에 강력 대응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허청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인사혁신처 주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3년 연속 수상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해 개최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에서 제출한 150여 점의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국민과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총 18점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정인식 기획조정관은 “올해 수상사례는 해외에서 담당자들이 직접 위조상품 확산을 차단하며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피해를 예방한 사례로, 앞으로도 특허청은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 붙임: 2023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작 주요 내용 및 시상식 사진

담당 부서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책임자	과 장	박현희 (042-481-5057)
		담당자	서기관	하유진 (042-481-5723)
			주무관	원문경 (042-481-5083)

결과	사례 제목 및 주요 내용								
<p>행안부 장관상</p>	<p>◆ 특허청, '한국산 둔갑 위조상품'으로부터 K-브랜드를 수호하다! (해외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호 지원)</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문제 상황</p> <p>중국에서 우리나라 미용 의약품(필라·보톡스), 베트남에서 한국 화장품, 농산물 등에 대한 위조상품 유통 정황 포착</p> <p style="text-align: center;">< 중국 및 베트남 내 한국산 둔갑 위조상품 유통 사례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 data-bbox="416 607 663 801">  </td> <td data-bbox="663 607 906 801">  </td> <td data-bbox="906 607 1142 801">  </td> <td data-bbox="1142 607 1401 801">  </td> </tr> <tr> <td data-bbox="416 824 663 902"> <p>(중국) 한국 유명 제약기업의 보톡스 위조상품</p> </td> <td data-bbox="663 824 906 902"></td> <td data-bbox="906 824 1142 902"></td> <td data-bbox="1142 824 1401 902"> <p>(베트남) 한국 농산물(신선배), 선크림 위조상품</p> </td> </tr> </table> <p>⇒ 우리나라 무역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향후 국내기업의 수출 확대 및 한국산 제품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신속·적극적인 대응 필요</p> </div>					<p>(중국) 한국 유명 제약기업의 보톡스 위조상품</p>			<p>(베트남) 한국 농산물(신선배), 선크림 위조상품</p>
									
	<p>(중국) 한국 유명 제약기업의 보톡스 위조상품</p>			<p>(베트남) 한국 농산물(신선배), 선크림 위조상품</p>					
<p>적극 행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중 미용의약품) 현장 실태조사 외에도 온라인 플랫폼 실태조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7~10월에 22개 도시에서 현장 조사 및 온라인 실태조사 실시 ② (중 식품) 특허청-피해기업 간 중국 지재권 소송 공동 대응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산업협회를 중심으로 피해기업들이 공동대응하는 전략을 제안 ③ (중국-베트남) 현지 정부 네트워킹 등을 통해 지속적인 단속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에서 위조상품 식별설명회 개최 및 정부 면담을 통해 단속역량 제고 ④ (베트남) 현지 재외공관(외교부) 등과 협의하여 예산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치민 영사관과 협의하여 외교부가 예산(\$14,300, 약 2천만원)을 투입 									
<p>주요 성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중 미용의약품) 한국산 짝퉁 미용 의약품 유통 확산 방지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판매 링크 적발 및 중국 광둥성에서 창고 2곳 단속('22.10) → 한국산 미용 의약품 3,164점을 압수, 폐기(정품 추정가 약 10억원) ② (중 식품) 지재권 소송 승소로 중국 내 짝퉁 제조업체들의 활동 위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모방제품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해 승소 판결을 이끈 최초 사례 ③ (베트남) 한국 위조상품 적발폐기 및 한국산 둔갑 농산물 주의 안내 방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박닌성에서 한국 화장품 위조상품 30,350개(정품 추정가 2.1억원) 폐기('22.12) 및 베트남 국영 방송사에서 한국산 둔갑 '원산지 위조과일(신선배)' 주의 경고('22.10.) <p>⇒ 중국·베트남 내 한국산 짝퉁 위조상품 유통에 강력 대응함으로써, K-브랜드 보호 기반 강화 및 향후 국내제품의 수출확대에 기여</p>									



<내용>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한국산 둔갑 위조상품으로부터 K-브랜드 수호’ 사례로 「2023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